

## 해석이론과 평가에 관한 연구

이 은 숙  
(고려대)

### 1. 서론

셀레스코비치(Seleskovitch)와 레더러(Lederer)를 비롯한 파리의 ESIT출신의 학자들은 이십여 년에 걸쳐 회의 통역을 하며, 이를 바탕으로 번역행위를 담론적 행위로 접근한다. 레더러는 『번역의 오늘』(1994)에서 “말은 사라지나 글은 남는다”(45).라고 지적하였다. 즉, 말은 그 어의들과 함께 사라지고, 의미들만 담론 대상인들의 머릿속에 남는다. 글은 이와 반대로 처음 대상인들 이후에도 살아남아 그 다음 대상인들에게 수많은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이점이 번역의 해석 이론적 관점이며 언어에 충실한 것은 텍스트에는 불충실하다고 해석이론 학자들은 주장한다.

말에서나 글에서나 이해는 해석이다. 다만, 역자와 텍스트간의 간격은 통역사와 담론간의 간격보다 더 크고, 해석의 어려움이 자주 더 발생한다. 그러나 “한 담론으로부터 그에 대한 해석의 과정이나 텍스트로부터 의미로, 의미로부터 다른 텍스트로 옮겨가는 과정은 본질적으로 동일하다(Lederer 60)”고 주장한

다. 번역은 하나의 구체적 발화행위이며 의미의 재현이다. 번역의 대상은 한 언어에서 다른 언어로가 아닌 텍스트이며 텍스트만이 번역가능하다. 하나의 텍스트를 이해한 다음, 이 텍스트를 다른 언어의 텍스트로 재현하는 것이다. 번역행위는 서로 다른 언어로 표현된 텍스트를 이해하고 등가를 재현해야 하는 행위로서 필연적으로 두 텍스트의 성격과 목표, 두 언어 사용집단의 문화적 관계와 이들의 정신적, 지적, 정감적 풍토와 함수관계에 있으며, 원어와 역어의 시기와 장소에 고유한 특징들까지도 고려해야 하는 총체적 의사소통행위이다. 해석이론은 의미이론이며 등가에 의한 번역이다. 번역은 형식적인 언어 개념에서 벗어나 텍스트의 언어와 그 다양한 구성요소들을 문화적 맥락과 관련된 사실로 인식하는 작업이다. 번역은 언어와 관련된 것이지만 그 이전에 어떤 특수한 상황의 문맥에 크게 좌우된다.

번역은 사회-문화적으로 주어진 환경에 상응하는 커뮤니케이션의 기능을 지닌 복합적, 다차원적 구조이기 때문에 개별어 어휘 하나하나가 아닌 텍스트만이 번역될 수 있으며 번역의 핵심적 문제는 결국 텍스트를 정확히 이해하고 그 의미내용을 역어의 문체론에 적합하게 재구성하는 것이다. 1990년대 이후 언어외적 요인인 언어의 사회적 기능 즉 커뮤니케이션 기능이 강조됨에 따라 텍스트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커뮤니케이션은 고립된 단어 또는 문장보다는 텍스트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최근 사회적 커뮤니케이션 도구로서 텍스트에 관한 관심이 고조되었다. 텍스트 언어학의 관점에서 보면 텍스트는 본래 언어기호로서 언어의 현상학적 존재방식이며, 언어는 텍스트형태로 나타나고 그 기능을 발휘한다. 즉 언어는 이미 정해진 의도나 목적과 언어 자체 의의(기능수행 능력)를 수반한다(Hartmann 15-17). 문장은 문법이라는 단순한 체계 내에서 정의되는 단위이지만 텍스트는 복합체계이며 그 체계의 상관관계에 의해서 정의되는 파롤차원의 구체적 언어단위이다. 그러므로 텍스트는 인간 커뮤니케이션의 궁극적인 단위이며 바로 번역의 기본단위이다. 텍스트는 현실적 시간과 공간 내에서 커뮤니케이션을 목적으로 하는 인간행위로 나타나며, 그 의의는 발화상황, 사회-문화적 배경 그리고 발화자의 의도 등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러므로 텍스트는 단순한 언표적 구성체가 아니고 커뮤니케이션 참여자가 구체적으로 활용하는 인지적 구성체이다.

고등학교나 대학의 실제교육현장에서 지식의 확인과 평가를 위해 주로 행

해지고 있는 번역은 의사소통적 기능이 아닌 학생들의 언어적 능력을 증가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코드전환의 연습이 주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지나치게 낱말이나 문법의 규칙에 부합되는 번역수업을 강요하다보니 학생들로 하여금 이중언어 사전의 의미를 기초로 하여 출발언어의 단어들을 도착언어의 단어로 옮기는 것이 완벽한 번역이라는 왜곡된 생각을 가지게 할 뿐만 아니라 한 언어의 각 단어에 필수적으로 대응하는 동등한 단어가 다른 언어에도 반드시 존재한다는 인식을 심어주게 된다. 또한 코드전환은 한 언어의 시니피앙의 의미적 깊이를 발견하는데 장애가 된다. 이런 코드전환은 후에 학생들이 외국어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올바르게 취급하는데 방해가 되며 번역학습에 극단적으로 해가 되는 자귀적 반사를 창출하게 된다.

모든 텍스트는 독자에게 해석을 요구한다. 물론 모든 번역에는 어휘와 표현들 간의 대응관계들이 포함되기 마련이나, 번역은 등가관계들의 창출 즉 언어를 넘어선 상황의 재현으로 말미암아 텍스트를 생산하게 된다. 번역이 성공하려면 원 텍스트와 번역 텍스트에 대한 총괄적 등가관계의 구축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두 언어에 대한 대응관계의 설정은 번역의 첫 단계이다. 단일 대상을 지시하는 경우에는 대응번역이 항상 불가피하게 필요하지만 텍스트 전체를 고려할 때는 그러한 설정은 통하지 않는다(Lederer 100).

본고에서는 해석이론의 기본개념과 최근의 등가개념에 대해 살펴본 후 텍스트 층위의 문학번역이 실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 2. 해석이란 무엇인가?

통역에서는 담론 의미라는 개념이 아주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진다. 특히 동시통역에서 그러한데, 여기서 의미는 통역사가 이해하고 표현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말이 사라져도 기억에 남는 유일한 것이다. 의미의 기억에 따른 이러한 말의 소멸현상은 언어의 핵심현상이다. 이러한 현상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난다. 아주 비상한 기억술을 가진 몇 명의 통역사들을 제외하고는 통역과정에서 들었던 적어도, 수백 낱말로 이루어진 회의 내용을 동일한 언어나 다른 언어로 되살려 낼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다. 그들은 언어를 탈피하여 이해한 것을 기억한

다. 이때, 머릿속에 남아있는 의미의 덩어리는 '탈 언어화'된 상태이다. 그들이 이해하고 다시 복원하는 담론의미는 문장의 어휘적 혹은 문법적 어의들을 훨씬 넘어선 수준이다. J. P.사르트르는 『문학이란 무엇인가?』에서 의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처음부터, 의미는 낱말 속에 간직되어있는 것이 아니다. 그 반대로, 의미가 낱말들의 어의를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니 말이다. 문학이란 대상이 비록 언어를 <거처> 실현 되기는 하나. 언어 속에 주어진 것은 결코 아니다. (...) 따라서 한 책에 늘어 놓인 수 만개의 낱말들을 하나하나 읽는 다 해도 그 작품의 의미가 드러난다는 보장은 없다. 의미는 낱말들의 총화가 아니라 이들의 유기적 전체이다. (Sartre 50-51)

의미는 탈 언어화된 언어 외적 지식과 결합되어 기억된 하나의 집합이다. 이 현상은 일반적인 것이며, 인간본성의 특성이다. 이 현상에는 단지 두드러진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늘, 언어 기호의 지각이 동반된다.

번역에서 '해석'이론을 적용하려할 때 회의적이고 반대하는 견해가 있는데 그 이유는 아마도 한편으로는 'interpretation'(해석 또는 통역)이라는 말이 갖는 편향적 색깔 때문에, 다른 한편으로는 의미가 언어적 의미들에 한정되지 않을 때 염려되는 의미의 범람 때문일 것이다. 미숙한 번역가가 몰라서건 부주의해서건 텍스트의 의미를 왜곡할 수 있다는 것은 맞는 말이나, 그렇다고 해서 '해석'의 의미를 번역의 오류와 부합시켜서는 안 된다. 원문의 의미를 저자의 의도와 혼동해서도 안 되고, 텍스트의 해석을 주석과 혼동해서도 안 된다(Lederer 45).

페르니에에 의하면 해석이론은 “기호를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텍스트 즉, 작가가 말하기를 원하는 것에 상응하는 의미를 지닌 전언(message)을 번역하는 것 이고 그 목적이 전언을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사소통의 행위이다(30)”라고 말했다. 셀레스코비치(1968)는 “번역의 대상은 랑그가 되는 텍스트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나타내는 것을 찾는 의미(9)”라고 한다. 즉 번역의 대상은 의미(sens)로, 이 의미는 랑그에 의해 부여된 의미들(signification)로 환언되는 것이 아니라 언어적이고 인식적인 문맥과 모든 언어 외적인 변수들로 구성되는데 이것은 작가, 주제, 전언의 수신자, 발화조건 등과 관계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번역은 랑그상의 해석을 넘어선 담화상의 해석이 되어야 한다.

해석이론의 번역과정은 3단계로 구성된다.

- 이해 : 언어기호의 코드 풀이와 의미의 포착
- 재현 : 유추(analogie)에 의한 추론 및 개념의 재언어화
- 검증 : 채택된 번역의 정확성 여부의 검증 또는 정당화

첫 번째 단계의 번역에서는 단어의 한계를 넘어서서 랑그 층위에서의 의미(signification)해석이 이루어지고 이어서 파롤 층위에서는 발화자의 구체적인 의미(sens)를 해석하는 것이다. 첫 번째 단계의 번역이 개념의 포착과 재현사이에서 이루어진다면, 두 번째 단계의 번역은 재현과 표현의 최종적 선택사이에 위치한다. 그리고 전자가 원문에 대한 것이라면 후자는 번역어에 대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번역은 이중해석(double interprétation)을 내포하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이중해석의 유일한 대상은 물론 의미이다. 이 의미는 번역대상의 의미뿐만 아니라 운율의 구조, 문체 등 형태의 의미까지도 포함하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랑그 층위의 의미를 기초로 하여 정확한 담화층위의 의미를 해석해 내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이 바로 유추(analogie)의 개념이다.

들리슬(Delisle)은 “번역의 모든 등가치가 미리 주어진 것은 아니며, 텍스트의 의미의 탐구와 재현은 유추에 의해 이루어진다(80)”고 지적하고 있다.

번역에 대한 이러한 기초적 가정은 유추의 개념이 해석적 번역의 방법론적 원리, 즉 번역의 원리임을 잘 보여주는 것이다. 그에 의하면, 비교문체론 학자들이 말하는 번역의 방법 혹은 절차들은 번역의 결과를 분리, 정리 한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며, 이 유추야 말로 실질적인 번역의 원리라고 본다. 소쉬르는 유추를 랑그에 있어서의 창조(créativité)의 원리로 보았는데, 들리슬은 이 개념은 랑그뿐만 아니라 담화에도 적용되는 핵심적인 번역의 원리로 보고 있다.

들릴(Drille)의 “Working” 번역의 예를 간단히 살펴보자. 그는 커피 등의 자판기나 사진자동촬영기 등에 이를 직역하여 써 붙인 붙어 “En marche”는 “Le moteur est en marche (모터가 돌아가고 있다)”의 뜻이기 때문에 적합하지 않으며, “Prêt à Fonctionner(작동 대기중)”라는 본래의 상황의미를 살리려면 “En service(판매중)” 정도로는 번역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이 표현을 찾아내는 과정이 유추의 과정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선 “Working”을 부

정하여 “Not working”, “Out of order”, “Out of service” 등의 형태를 찾아내고, 이를 다시 부정한 “Hors d’usage”, “En panne”, “Hors service” 등에서 이들의 반의어이며 “Prêt à fonctionner”의 의미를 가진 “En service”라는 표현을 도출하는 과정이 바로 유추의 과정이다. 마지막 단계인 검증은 채택된 표현이 원문의 의미와 일치하는가, 보다 정확히 말하자면 텍스트의 저자의 의도에 대한 자신의 해석과 일치하는가를 따지는 것인데 이것도 하나의 해석과정이다.

### 3. 최근 등가이론 흐름

번역행위는 서로 다른 언어로 표현된 텍스트를 이해하고 등가를 재현해야 하는 행위이다. 번역에서 등가에 대한 논쟁은 기원전 1세기의 키케로시대 때부터 거슬러 올라가는 아주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본고에서는 해석이론과 맥을 같이하는 개념들을 먼저 짚어 본다.

라손은 “등가를 원문저자가 의도한 의미와 ‘같은 의미’와 ‘역동성’ 유지를 의미한다고 보았고,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화행(speech act)의 배경과 메시지의 목적을 의미한다고 하였다”(45). 티크는 등가의 개념을 분석하고 등가에 대한 결정이 적절성의 개념에 기초한다는 점에 주목하였는데, 이는 절대적인 가치에 대한 근사치를 의미한다고 하였고, 이러한 가치들을 기능에 따라 구분하였다(65). 레비는 “등가에 대한 세 가지 상반된 가치 즉, ‘일반적-특수’, ‘전체-부분’, ‘내용-형식’을 주장하고, 좋은 번역은 ‘일반적 -전체적 -내용’을 강조하여야 한다(35)”고 하였다.

이에 대해 뉴벌트는 “텍스트적 등가”를 제안한다(77). 그는 슈레브(Shreve)와의 공저에서 “만약 번역학자들이 등가가 완전한 동일함을 의미한다는 주장을 포기한다면 등가는 여전히 번역학에서 유용한 개념으로 남을 수 있을 것(56)”이라 하였다. 등가에 대한 대부분의 비판은 등가를 언어적·어휘적 해석으로만 보는 관점에서 비롯한다. 그러나 SL의 단어와 TL의 단어들은 거의 등가를 이룰 수 없다는 점은 분명하다. “이제 언어적 등가를 옹호하는 견해는 찾아볼 수 없으며 ‘텍스트 전체로서의 등가’를 생각할 수 있다(142).” 뉴벌트는 이 개념을 원형(prototype)개념에서 나올 수 있는 것으로 보고, 텍스트 형성이 상황적·기

능적으로 등가의 원형에 기인할 때 등가를 이룬다고 보았다. 또한 그는 “의사소통적 등가”를 주장하였는데(56) 즉, 잘된 번역의 경우 도착어 독자는 번역 텍스트를 유용한 텍스트 상황으로 수용하고 자신의 필요에 따라 되살려 낼 수 있다. 그 텍스트는 번역사가 원문의 의미를 도착어 문화의 원형에 적합하게 연결시킴으로써 의사소통적인 가치를 생산하게 된다. 이 새 텍스트는 결국 원 텍스트의 ‘자리에 위치할’ 것이라 할 수 있고 재텍스트화된 원문의 대용물인 셈이다. 원문과 번역문은 표면상으로는 일치하지 않더라도 의미론적 구조가 변형되어 기본적으로 유사한 상황에서 유사한 독자에게 유사한 정보를 제공한다. 결국 등가는 텍스트 표면간의 관계가 아니며 텍스트 효과와의 관계 즉, 의사소통적 가치와의 관계이다. 번역학자들은 언어적 대응을 측정해서는 등가가 존재하는지 결정할 수가 없다. 번역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번역을 자신들의 의사소통적 가치에 근거하여 수용 또는 거부를 측정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목표언어 텍스트의 구성성분들의 언어적 의미가 원천언어에 정확히 등가를 이루는가의 여부가 아니라, 지식의 활성화로서 텍스트의 중요성이 등가를 이루는가의 여부이다. 번역의 목적과 기능이야 말로 의사소통적 등가의 생성과 평가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텍스트에는 지식의 변화와 관련된 복잡한 문제 해결 전략이 관여하며, 의사소통적 등가와 텍스트 차원의 등가는 번역의 목적이 중심이 되는 행위 내에서만 이해될 수 있다(145)”는 주장도 번역의 목적을 강조한 견해이다.

이상의 등가 개념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번역에서 달성해야 하는 것은 단순한 언어차원의 등가가 아니라, ‘전체 텍스트로서의 등가’이며, 여기에는 어순 및 단어차원의 언어적 등가의 달성뿐 아니라 공손전략(politeness)등의 사회언어학적 차원의 등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 4. 등가에 의한 번역

본고에서는 영한 문학 텍스트의 번역문을 검토해보면서 실제 번역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고 텍스트 층위의 등가개념 및 해석이론을 적용해 보고자 한다. 원문은 J. Steinbeck의 1945년작 *Cannery Row*(고려대학교 출판부)의

14장을 살펴보고자 한다. 한글번역은 고려대학교 출판부에서 출판된 번역학 총서시리즈에 자료로 첨부되어 있는 것으로 허창수가 번역하였다. 전체 이야기에서 거의 독립적인 14장은 소설전체를 모르더라도 읽을 수 있는 부분이다.

(1)EST: Early morning is a time of magic in Cannery Row. In the gray time after the light has come and before the sun has risen, the Row seems to hang suspended out of time in a silvery light. The street lights go out, and the weeds are a brilliant green. The corrugated iron of the canneries glows with the pearly lucence of platinum or old pewter. No automobiles are running then. The street is silent of progress and business. And the rush and drag of the waves can be heard as they splash in among the piles of the canneries. It is a time of great peace, a deserted time, a little era of rest. Cats drip over the fences and slither like syrup over the ground to look for fish heads. Silent early morning dogs parade majestically picking and choosing judiciously whereon to pee. The sea gulls come flapping in to sit on the cannery roofs to await the day of refuse. They sit on the roof peaks shoulder to shoulder. From the rocks near the Hopkins Marine Station comes the barking of sea lions like the baying of hounds. The air is cool and fresh. In the back gardens the gophers push up the morning mounds of fresh damp earth and they creep out and drag flowers into their holes. Very few people are about, just enough to make it seem more deserted than it is.

(*Cannery Row* by Steinbeck 120)

KT : 통조림 공장 거리의 아침은 마치 마술과도 같다. 빛은 서서히 들어 오고는 있지만 태양은 아직 뜨지 않은 어스름한 때, 통조림공장 마을은 은백색의 빛 속에 붕 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가로등불은 하나 둘씩 꺼져가고 잡초들은 생기 있는 초록빛으로 되돌아간다. 통조림 공장 마을의 건축구조를 이루고 있는 철판 구조물들은 플래티늄이나 주석에서 볼 수 있는 진주빛으로 반짝이고 있었다. 차량은 이 시간에 볼 수가 없다. 거리는 조용하며 어떤 움직임도 볼 수가 없을 정도이며 인접한 바다의 파도 소리만 들릴 뿐이다. 이 시간은 고요한 평화의 시간이며 사람을 볼 수 없는 그야말로 휴식의 시간이다. 고양이들은 집 울타리를 넘어서 공장에서 내다버린 생선대가리를 구하려고 밖으로 나오고 있었으며 개들은 위엄있게 줄을 지어 행진하면서 오줌 놀 자리를 물색하고 있었다. 갈매기들도 통



조림 공장 지붕위로 내려와 앉아서는 공장에서 찌꺼기들을 내다 버려 주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들은 어깨를 나란히 한 채 죽 늘어서 앉아 있었다. 홉킨스 부두 근처의 바위에서는 바다표범들이 개짓듯이 짖어대는 소리가 들렸고 공기는 바다공기여서인지 차갑고도 신선했다. 뒷동산에서는 들쥐들이 자기들의 보금자리인 흙더미를 제치고 밖으로 나와 살금살금 기어서 꽃과 나무 잎사귀를 가지고 안으로 되돌아간다. (허 창수 역 100)

스타인벡은 *Cannery Row*에서 캘리포니아의 여름 어느 날 해뜰 녘, 대서양에 면한 통조림공장 거리의 한 장면을 묘사한다. 시간을 넘어선 거리, 완벽한 평온, 집울타리 사이를 스르르 빠져나가는 고양이들과 개들을 묘사하면서 이른 아침의 부둣가 근처의 공장의 거리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14장의 서두는 특히, 진하게 강조되어있는 문장들은 이른 아침의 공장의 거리를 그대로 재현하듯, 시간적 배경묘사를 주로 나타내고 있는데 위의 긴 단락 전체가 하나의 상황의미의 덩어리로서 독자에게 전달되어 머릿속에 생생한 이미지를 주고 있다. 물론 번역 중간 중간에 언어적 대응도 등가의 한 부분이다. 하지만 대응관계들의 설정은 번역의 첫 단계이며 언어적 측면만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무슨 이야기인지, 또는 둔탁한 글이 되어 읽기에 불편해진다.

다음은 14장 세 번째 문단이다. 이번에는 영어 원문에 붙어 번역본과 국어 번역본을 함께 보면서 설명하겠다.

(2)EST: The soldiers' tunics were unbuttoned and their belts were threaded through their epaulets. ①The ties were pulled down a little so the shirt collars could be unbuttoned. And the soldiers wore the girls' hats, one a tiny yellow straw boater with a bunch of daisies on the crown, the other a white knitted half hat to which medallions of blue cellophane adhered. ②They walked holding hands, swinging their hands rhythmically. The soldier on the outside had ③a large brown paper bag filled with cold canned beer. They strolled softly in the pearly light. They had had a hell of a time and they felt good.

(Cannery Row by Steinbeck 122)

(3)FT: Les soldats avaient déboutonné leur tunique et passé leur ceinture dans leurs épaulettes, ①ils avaient défait leur cravate afin de pouvoir

ouvrir leur col, et ils avaient coiffé les chapeaux des filles : l'un avait le chef orné d'une paille jaune surmontée d'un bouquet de pâquerettes, l'autre portait un bonichon de tricot blanc décoré d'un médaillon de cellophane bleue. ②Soldats et filles se tenaient par la main et balançaient leurs mains en mesure. Le soldat qui marchait sur le bord du trottoir portait un ③cabas de papier brun, rempli de bière en boîtes, et tous quatre avançaient doucement dans la lumière aux tons nacrés ;ils venaient de passer une nuit du tonnerre de Dieu, et la vie était bell.

(M. PAZ 역 58)

(4)KT: 군인들은 상의 단추가 풀려 있었고, 벨트는 견장에 끼워져 있었다.

①그들은 것이 벌어지도록 넥타이를 풀어헤친 채 아가씨들의 모자를 쓰고 있었다. 한 사람은 한 뭉치의 데이지꽃이 꽃힌 밀짚으로 만든 작고 노란 모자를 썼고, 다른 한 사람은 파란 셀로판지로 만든 작은 메달 같은 것이 붙어있는 실로 짠 흰 모자를 쓰고 있었다. ②군인들과 아가씨들은 손을 잡고 박자를 맞추어 흔들며 걷고 있었다. 차도 쪽을 걷고 있던 군인은 시원한 캔 맥주가 들어있는 큼직한 갈색 종이봉투를 들고 있었다. 네 사람은 진주 빛 속을 한가롭게 걷고 있었다. 그들은 간밤을 흐드러지게 보낸 참이었고, 기분이 유쾌했다. (허창수 역 110)

텍스트 읽기는 각 낱말들의 어의의 순차적 포착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련의 낱말들의 전체적이고 민첩한 맥락 파악을 통해 이루어진다. 즉 ‘의미 단위’라고 부르는 의미조각을 나타낸다. 이러한 의미단위가 번역 단위이며, 다른 언어에서 등가관계를 설정할 수 있는 텍스트의 최소 조각이다.

1번 문장의 불어 번역을 살펴보면 역자는 각 낱말을 하나하나 번역한 것이 아니다. 역자는 ‘les cravates étaient un peu tirées vers le bas, pour que les cols de chemise puissent être déboutonnés’ 영어의 문장 그대로 직역한 ‘넥타이는 와이셔츠의 것을 풀어낼 수 있도록, 조금 풀어내려져 있었다’라고 옮기지 않았다.

역자는 의미 단위 즉, 상황의 이미지를 떠올리고 그가 보이는 대로 <풀어진 넥타이, 벌어진 것>을 묘사한 것이다. 그러니까 역자의 상상이 낱말들의 의미내용에 보태져, 이미지가 프랑스 독자들이 보는 방식으로 표현된 것이다. 역자는 원본이 등가표현들을 사용하여 환기한 것과 동일한 이미지를 불어로 보이고 있다.

2번 영어 원문에서 대명사 ‘They’는 불어로 ‘soldats et filles 군인들과 아가씨들’로 풀어 썼으나, ‘walked’의 해석은 빠져 있다. 역자도 이야기 서두부터 젊은 사람들이 걷고 있는 것을 알고 있고, 독자도 알고 있다. 영불 텍스트는 각기 말하지 않은 내용을 담고 있다. 즉 ‘walked’와 ‘soldats et filles’가 각기 함축되어 있고, 양측 독자들은 이를 이해한다. 두 경우 모두 명시적 언어 표현과 언어 외적 지식이 결합하여 동일한 의미단위를 이룬다.

3번 영어 원문 ‘large brown paper bag’를 불어로 ‘cabas de papier brun(갈색종이 바구니)’이라고 한 것은 미국에서 식료품을 담아주는 종이 봉투의 크기가 어떠한지 암시한다. ‘grand sac en papier(큰 종이 자루)’로 번역했다면 이 크기가 잘 이해되지 않았을지 모른다. 대응의 단위는 가려내기가 쉽지만, 의미단위에는 정해진 언어상의 길이가 없다. 생각은 짚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등가 관계도 마찬가지이다. 어떠한 의미도 결코 완벽하게 명시적이지는 않다. 그래서 모든 화자는 청자의 협조에 기대를 하며, 자신의 말의 명시적 부분을 상대가 갖고 있다고 생각되는 지식에 맞춘다. 화자의 텍스트는 상대가 다루어진 주제를 잘 모르고 있다고 생각되면 그럴수록 보다 자세해질 것이고, 잘 알고 있다고 생각되면 그럴수록 그 텍스트는 더욱 농축될 것이다.

낱말들도 문법구조들도 정확히 대응되지 않는다면, 무엇을 근거로 하나의 번역문이 그것의 원문과 등가라고 판단하는가? 콜러(1979)는 그의 『번역학 입문』에서 등가의 기준들을 밝히려는 노력을 경주했다. 그는 “캣포드, 나이다와 테블러, 윌스, 예거 등의 저자들에게서 ‘등가’를 가리키는 용어가 다양했음을 상기시키며 불변내용이라고도 부르는 ‘내용적 등가’, ‘형태적 등가’, ‘텍스트적 등가’, ‘의사소통적 등가’, ‘결과적 등가’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80).”

등가개념의 내용을 좀 더 섬세하게 파악하기 위해, 콜러는 전체의 등가관계를 결정하는 요소들을 분석한다.

- 외연적 등가(Denotative equivalence)는 하나의 텍스트의 초언어적 내용의 등가와 관련 되어 있다. 콜러는 이것을 ‘내용적 불변’이라 부른다.

- 내포적 등가(Connotative equivalence)는 번역은 언어 사용역, 사회언어, 표현의 사용지역 등의 문체를 존중하는 것을 말하며 ‘문체적 등가’라고도 한다.

- 텍스트-규범적 등가(Text-normative equivalence)는 번역은 번역된 텍스트의 유형에 적합해야 함을 말한다. 예를 들어 요리법을 법학개론처럼 쓰지 않는다.

- 화용적 등가(Pragmatic equivalence) 또는 ‘소통적 등가’는 텍스트 또는 메시지의 수신자 중심이다. 번역이 이해되려면 독자의 지식에 맞추어져야 한다.

- 형식적 등가(Formal equivalence)는 텍스트의 형식과 미학적인 부분과 관련되어 있으며 ST의 단어들과 개개의 문체적 특징을 포함한다. 이 유형은 ‘표현적 등가(expressive equivalence)’라고도 부른다.

이러한 기준들은 번역을 판단할 때, 의식적이건 무의식적이건, 틀림없이 고려의 대상이 된다. 그리고 혹 필요한 등가관계를 놓치지 않는지 살펴보게 해준다. 다른 가치판단과 마찬가지로, 번역의 등가에 대한 판단은 상당부분 주관적인 부분이 있다.

콜러의 기준들을 위에 인용된 *Cannery Row*에 적용해보면

-이야기에 담긴 정보가 충분히 전달되었다.

-불어 표현이 언어사용역과 원문 표현의 단순성을 존중하고 있다.

-불어 표현에 번역 냄새가 안 나고, 문체도 문학 장르에 적합하다.

-프랑스 독자에게 성공적으로 맞추어져 있다. ‘large brown paper bag’를 ‘cabas de papier brun’이라고 한 것은 미국에서 식료품을 담아주는 종이봉투의 크기가 어떠한지 암시한다.

-원문의 온화한 미적 효과가 번역에도 그대로 나타나 있다.

콜러의 다섯 가지 기준은 충족되었다고 볼 수 있다. 번역가들은 번역을 할 때, 이해한 것과 텍스트를 읽으며 느낀 것으로부터 착상을 얻어 자연스럽게 재 표현하는 것이다.

## 5. 결론

지금까지의 논의에서 볼 때, 모든 텍스트는 독자에게 해석을 요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역자는 그가 번역하는 텍스트의 대표독자로서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진 독자들 중의 한 사람이라 할 수 있다. 역자가 성공적인 번역을 하기 위해서는 원 텍스트에서 언어외적 현실을 보아야 하고, 감정이입이 되어야 한다. 언어를 통해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감지하기 위해 언어를 넘어서야 한다. 역자는 원저자의 인지적 요소와 정감적 요소를 불가분의 하나로서 느끼고 자신의 재능으로 멋지게 이를 재현할 수 있어야 한다.

본고에서 주장하는 번역의 원리는 바로 ‘해석’ 즉, 텍스트나 담론에 대한 이해(comprehension)로 보는 것이다. 번역사와 통역사는 담론이나 텍스트의 의미를 인지하는 탈언어화 단계를 지나, 마치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바인 것처럼 의미에 작용을 하여, 다른 언어의 새로운 담론 속에 이를 재실현하는 표현 단계에 도달한다. 해석 번역이 ‘자유로운’ 번역은 아니다. 번역자는 등가관계들의 창출에 의해 낱말들, 즉 원전으로부터 자유로워 질 수 있고, 또 그래야 하지만, 의미에 대해서도 그러한 자유를 누리지는 않는다. 번역에 있어서 자유의 필연적인 목적은 의미에 대한 충실성이다. 이 때의 의미는 문자와 대비되는 정신이 아니라, 수신인에 대한 텍스트의 총체적 효과를 말한다. 사고는 언어적 테두리들에 갇혀 있지 않다. 역자의 표현은 나타내야 하는 사물의 상태들에 달린 것이지, 낱말들 사이에 사전에 이루어진 대응관계들에 달린 것이 아니다. 기존의 대응관계들은 새로운 번역을 하기 이전의 번역들의 결과들이고, 등가관계들은 지금의 구체적 혹은 추상적 현실들을 나타내는 것이며 문제된 현실의 특수성을 반영한다.

## 참고문헌

- 김효중. 1998. 『번역학』. 대우학술 총서. 서울: 민음사.
- \_\_\_\_\_. 2004. 「해석학적 번역이론과 텍스트기능」 『한국번역학회집』. 제5권 1호. p.78-82.
- 전성기, 김현권, 홍재성. 1989. 『불어학 개론』. 서울: 한국 방송 통신 대학 출판부.
- 전성기 역 2001. 『번역의 오늘』. 서울: 고려대학교출판부(Marianne Lederer. 1994. *La traduction aujourd' hui*. Paris: Hachette-livre).
- Delisle, J. 1980. *L'analyse du discours comme méthode de traduction*, Presses de l'Université d Ottawa.
- Hatim, B. & I. Mason. 1990. *Discourse and the Translator*. New York: Longman Group Limited.
- Koller. W. 1979. *Einführung in die Übersetzungswissenschaft*, Quelle und Meyer. Heidelberg.
- Lévy, J. 1967. Translation as a decision process. In *To honor Roman Jakobson: Essays on the occasion of his 70th birthday*, 2(pp. 1171-1182). The Hague.
- Munday, Jeremy. 2001. *Introducing Translation Studies: Theories and Applications*. London & NY : Routledge.
- Nida, E. A & C. R. Taber. 1974. *The Theory and Practice of Translation*. Leiden: E. J. Brill
- Neubert, A. & Shreve, G. 1992. *Translation as Text*. Kent: Kent State University.
- Pergnier. M. 1973. *Traduction et théorie linguistique*, ELA. N°12, oct-dec. pp. 26-38.
- Sager, J. C. 1993. *Language engineering and translation-Consequences of automation*. Amsterdam/Philadelphia : John Benjamins.
- Sartre, J-P. 1985. *Qu'est-ce que la littérature?*. Gallimard, Paris.
- Seleskovitch. D. 1968. *L'interprète dans les conférences international*.

《Lettres Modernes》, Minard, Paris.

J. Steinbeck 1945. *Cannery Row*. Bantam Books: New York. Traduction française de Paz, M. 1948 : *La Rue de la Sardine*, Collection Folio, Gallimard. (한역: 허 창수 1994. 『통조림 공장 마을』. 문학세계사.)

[Abstract]

## A Study on the Interpretation Theory and Equivalence Relation

Lee, Eun-sook  
(Korea University)

This paper studies on the Interpretation Theory as a main principle of translation. Interpretation theory has been studied by the ESIT professors of Paris, including D. Seleskovitch, M. Lederer, and J. Delisle. They, as professional interpreters, have researched the process of interpretation for twenty years. They have argued that translation activity is the discourse process of language and Interpretation is comprehension of sense whether it is speech or writings.

Translation is a realistic speech act and reformulation of sense. The subject of translation is not from langue or parole but text, which can only be translated. This theory also conforms to the principle of translation of equivalence, which conclude object and characteristic of text, cultural- social context and the level of readers between source text and target text. To produce a successful translation, the construction of all-inclusive equivalence relation is needed. In other words, translators have to get beyond the level of words, language of SL text and reach the state of empathy of SL text, reemerging the meaning and context.

In addition to, this paper mentions a variety of equivalence concept from many scholars including Larson, Turk, Levy and Neubert. They argue the importance of the equivalence of whole-text relating word order, linguistic equivalence, the strategy of politeness, social linguistic knowledge, and so on.

To apply this theory to a case, a part of a literature novel, chapter 14 of *Cannery Row* by J. Steinbeck, is translated into French and Korean version. In



attempt to answer equivalence judgement of this text, this paper applies 'Koller's five different types of equivalence that describe Denotative, Connotative, Text-normative, Pragmatic and Formal equivalence. He distinguishes more closely the concept of equivalence and its linked term correspondence from his research paper. The question as to what exactly has to be equivalent between SL and TL still remains. Consequently, interpretation theory is comprehension of meaning on the text or discourse and connected with equivalent translation.

▶ Key Words: text comprehension, deverbalization, situation-reformulation, the equivalence whole-text, empathy to SL text, reexpression of meaning

이은숙

고려대학교 번역학 박사과정 수료

bigworld21@hanmail.net

관심 분야: 번역이론, 번역 교육

논문투고일: 2007년 4월 18일

심사완료일: 2007년 5월 30일

게재확정일: 2007년 6월 13일